

경제상황 인식과 ‘자신의 삶’ 평가

■ 현 경제상황 인식

- _ 요즘 경제상황, 모든 분야 걸쳐 ‘나쁘다’ 압도적
- _ 경제상황 ‘부정 인식도’, 30대 여자와 4060세대 특히 높아
- _ 지역별로는 TK,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부정 인식도’ 높아
- _ 중간 소득층 ‘부정 인식도’ 높고, 이념별로는 별 차이 없어

■ 현 경제상황 유지 시기 전망

- _ ‘나쁜 경제상황’, 당장 해소될 것으로 생각지 않아
- _ 세계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계층별 의견 달라
- _ 국가경제 ‘나쁜 상황’, ‘내후년까지’ 유지 전망 다수
- _ 내 개인경제 ‘나쁜 상황’, ‘모르겠다’ 의견 높아

■ 경제요인별 ‘내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

- _ ‘물가상승’ 영향, ‘부정적’ 89%로 매우 높아
- _ ‘물가’ 전 세대에 영향 / 다른 요인은 세대 차이 존재
- _ 경기.인천과 자영업자, 화이트칼라 부정영향 특히 높아
- _ 고소득층도 부정영향 높고, 이념별 차이는 거의 없어

■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 _ ‘번창하고 있다’ 9%, ‘고통스럽다’ 23%
- _ ‘고통스럽다’ 유형, 거의 모든 계층에서 우세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년 9월 4일(일) ~ 9월 6일(화)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1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8\%$
가 중 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2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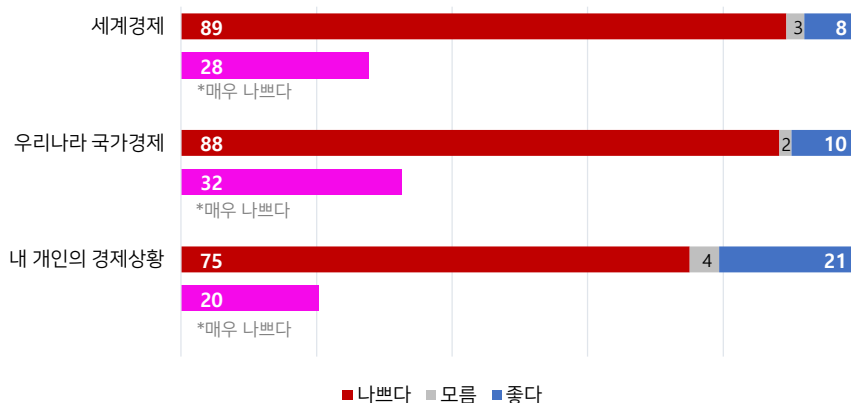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현 경제상황 인식

□ 요즘 경제상황, 모든 분야 걸쳐 '나쁘다' 압도적

- 우리 국민들은 요즘의 경제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세계경제'도 나쁘고(89%), '우리나라 국가경제'도 나쁘며(88%), '내 개인의 경제상황'도 나쁘다(75%)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음
 - "선생님은 요즘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국가 경제, 그리고 선생님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나쁘다'는 응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대해 '매우 나쁘다'는 응답이 32%로 높아, 국가경제에 대한 우려가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위 질문에 대한 보기는 ① 매우 나쁘다, ② 다소 나쁜 편이다, ③ 다소 좋은 편이다, ④ 매우 좋다, ⑤ 모르겠다로 제시했는데,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대해 '매우 나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현 경제상황 인식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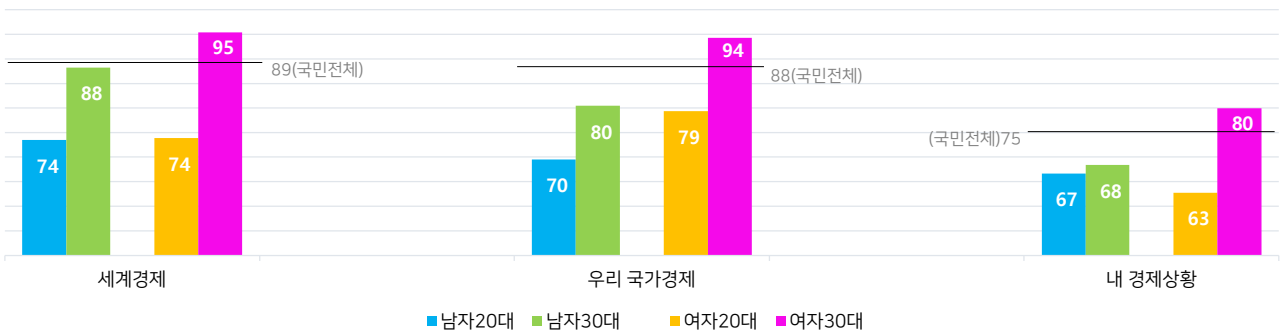
Kstat Point

- ☑ 2년여 만에 코로나19의 터널을 빠져나온 국민들은 일상회복과 경기활성화를 기대했으나, 글로벌 차원의 경제충격이 덮치면서 최악의 경제상황을 보내고 있음
 - : 이른바 '3고 경제란'으로 불리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삶은 매우 힘든 것으로 보임
 - : 특히 '내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해 '나쁘다'는 응답이 75%를 기록, 지금의 경제충격이 저소득층 등 일부 국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부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들은 '지난 30여 년간의 저물가 시대가 가고,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다'면서 현 경제상황은 글로벌 경제질서의 근본적 대전환에 따른 구조적 충격이라고 진단함
 - : 즉, 지금의 경제적 충격은 이전의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마주해야 할 새로운 경제현실이라는 것임
 - : 그 충격의 강도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진단이 다르지만, '인플레이션 시대' 또는 '긴축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진단은 동일함
- ☑ 단기간 내에 요즘의 경제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 대다수의 경제적 삶 역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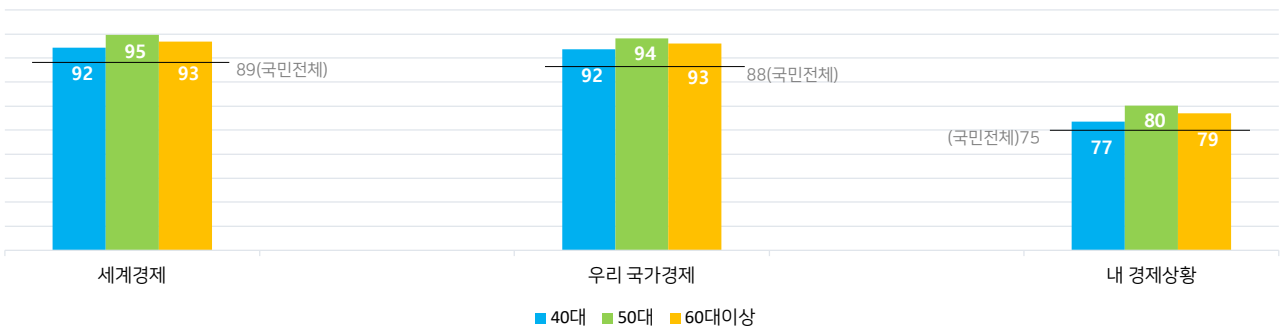
□ 경제상황 '부정 인식도', 30대 여자와 4060세대 특히 높아

- 요즘의 경제상황 인식을 세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여자와 4060세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30대 여자가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나쁘다'고 인식함
 - 아래 그림에서 가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부정 인식도'임
- 20대 남녀는 상대적으로 '부정 인식도'가 낮음
 - 20대 남자의 부정 인식도, 세계경제 74%, 우리 국가경제 70%, 내 경제상황 67%
 - 20대 여자의 부정 인식도, 세계경제 74%, 우리 국가경제 79%, 내 경제상황 63%

현 경제상황 부정 인식도 : 2030세대 남녀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현 경제상황 부정 인식도 : 4060세대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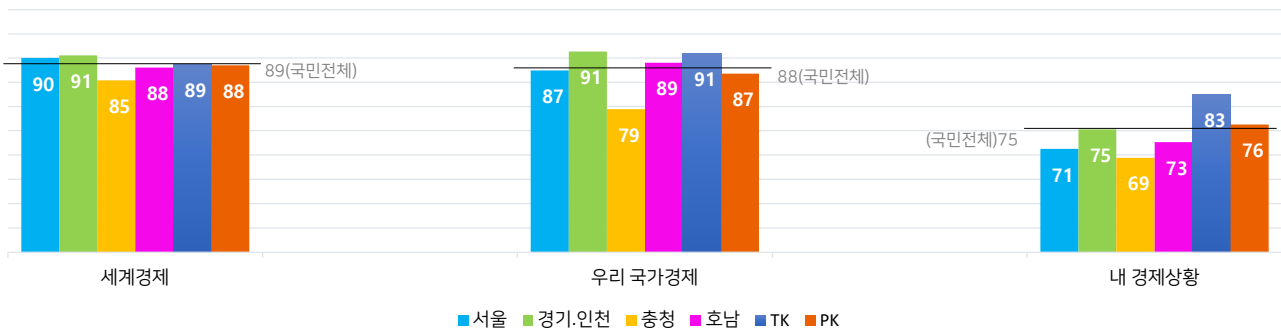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요즘의 경제상황에 대해 모든 성/연령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 강도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
 - : 4060세대는 높은 '부정 인식도'를 보이는데 비해 20대는 낮음
 - : 30대의 경우 여성은 4060세대처럼 높은 '부정 인식도'를 보이지만, 30대 남성은 그 중간에 위치함
-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 및 경제정책에 대해 30대 여자와 4060세대의 주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분석됨
 - : 20대 역시 절대적인 면에서 '부정 인식도'가 높아, 정부 경제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임
 - :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민여론에 조응, 경제에 집중하는 활동 및 정책수립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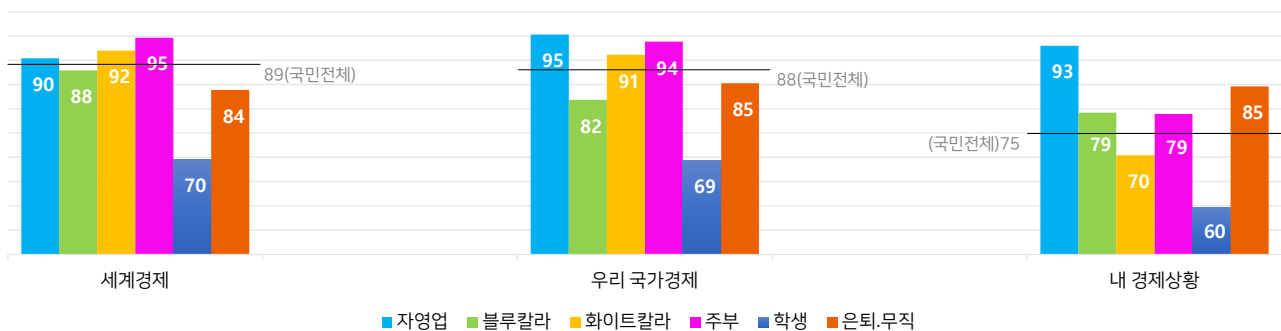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TK,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부정 인식도' 높아

- 요즘 경제상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TK의 '부정 인식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다음은 경기.인천으로 조사됨
 - 아래 그림에서 가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부정 인식도'임
- '내 경제상황'의 경우 TK의 '부정 인식도'는 83%를 기록,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높음
 - 상대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부정 인식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권임
-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부정 인식도'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주부와 은퇴.무직자도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자영업자의 경우 특히 '내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 인식도'가 93%를 기록함
 - 상대적으로 학생층의 '부정 인식도'가 전반적으로 낮음

현 경제상황 부정 인식도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현 경제상황 부정 인식도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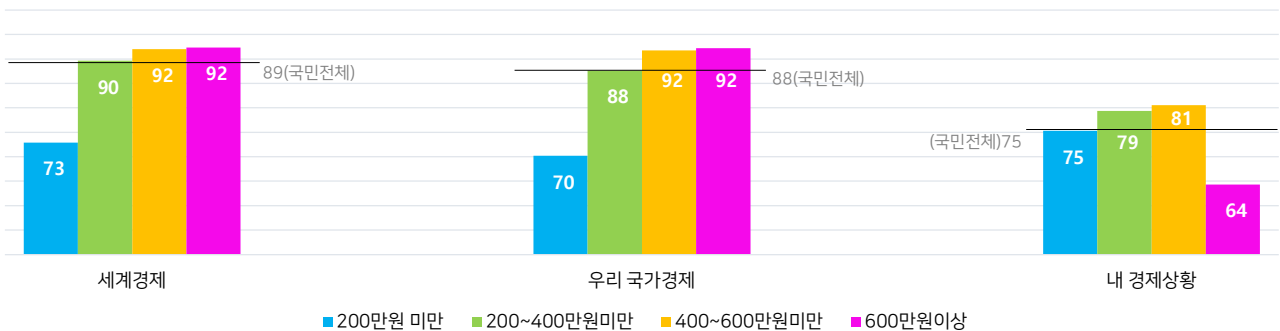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요즘의 경제상황에 대해 모든 지역과 모든 직업군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나쁜 경제상황'은 일반적인 국민인식으로 정착되어 있음
- ☑️ 특히 TK지역과, 자영업자 종사자들의 '내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음
 - : TK지역은 오래도록 지역경제 침체가 화두가 되어 왔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맞이한 지금의 경제적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임
 - : 자영업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데 이어, 경제적 충격까지 겹쳐 부정적 인식이 극대화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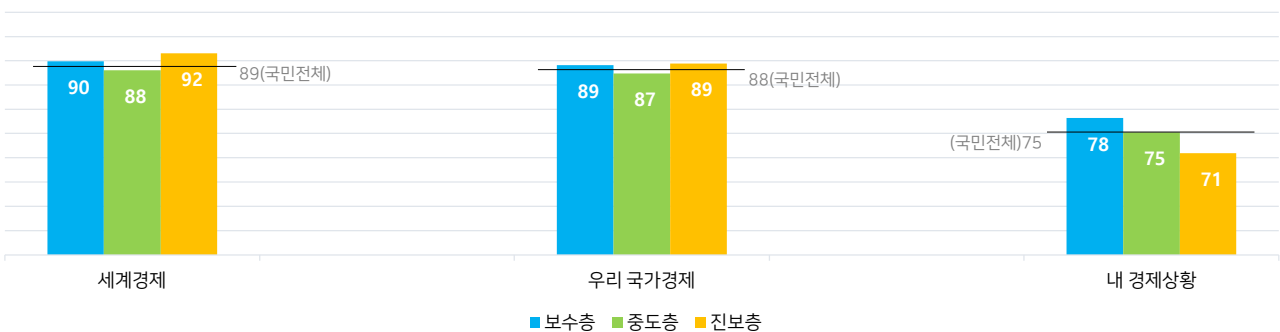
□ 중간 소득층 '부정 인식도' 높고, 이념별로는 별 차이 없어

-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 인식도'를 월 평균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간 소득 가구의 '부정 인식도'가 높음
 - 아래 그림에서 가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부정 인식도'임
- 중간 소득 가구는 '세계경제', '우리 국가경제'를 비롯해 '내 경제상황'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정 인식도'가 높게 나타남
 -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경우 '세계경제'와 '우리 국가경제'에 대한 '부정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세계경제'와 '우리 국가경제'에 대한 '부정 인식도'가 높지만, '내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음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는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내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 인식도'에서 보수층은 높고, 진보층은 낮다는 차이만 보임

현 경제상황 부정 인식도 : 월평균 가구소득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현 경제상황 부정 인식도 : 주관적 이념성향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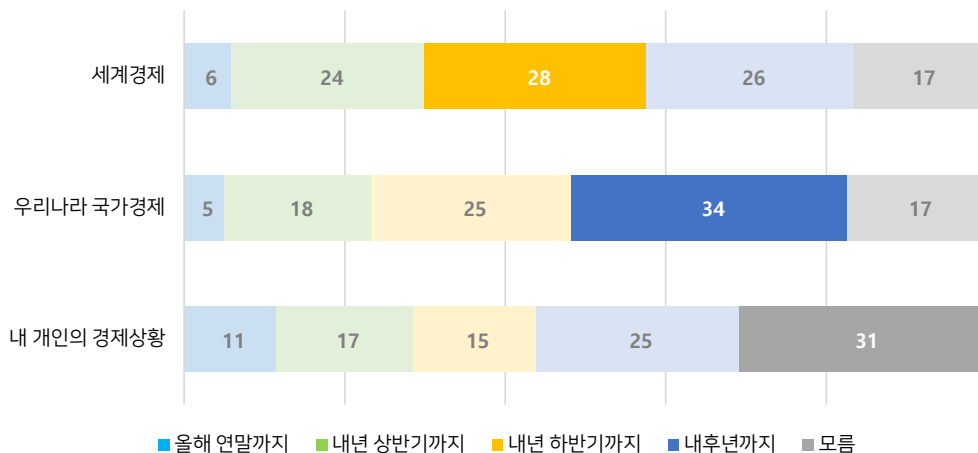
- ☑ '내 경제상황'에 대한 소득별 '부정 인식도'를 보면, 중간소득층(200~600만원 미만)의 수치가 가장 높음
 - : 다음은 저소득층이고, 고소득층이 뒤를 이음
 - : 저소득층은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임
 - : 고소득층은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 즉, 정부 지원도 없고, '경제적 여력'도 없는 중간소득층이 지금의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과 정책수립 시 중간소득층의 여론을 중요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현 경제상황 유지 시기 전망

□ '나쁜 경제상황', 당장 해소될 것으로 생각지 않아

- 우리 국민들은 지금의 '나쁜 경제상황'이 단기간 내에 해소될 것으로 생각지 않음
- '세계경제'의 경우 '내년 하반기까지'라는 응답이 많았고(28%), '우리나라 국가경제'는 '내후년까지'라는 응답이 많음(34%)
 - 단기간이라 할 수 있는 '올해 연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라는 응답은 낮게 나타남
 - "(앞서 '나쁘다'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선생님은 지금의 나쁜 경제상황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특히 '내 개인의 경제상황'은 예측조차 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 '모르겠다'는 의견이 31%로 가장 높고, 다음은 '내후년까지' 25%로 조사됨

나쁜 경제상황 유지 시기 전망 : '나쁘다' 응답자전체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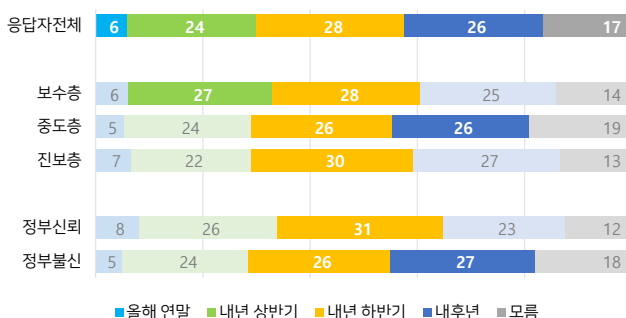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은 지금의 '나쁜 경제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 단기간이라 할 수 있는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라는 의견은 소수이고, 내년 하반기 또는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음
- ☑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내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으로, 응답자 중 31%가 '모르겠다'고 응답함
 - :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상당 기간 나쁜 상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내 경제상황에 대해 더욱 암울한 전망을 낳은 것으로 분석됨
- ☑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임
 - : 정부 입장에서 지금의 경제충격이 글로벌 차원의 충격이자, 구조적 대전환이기에 마땅한 해법을 마련하기 어려움
 - : 그러나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을 다독이고, 희망적인 미래 비전 제시로 자신감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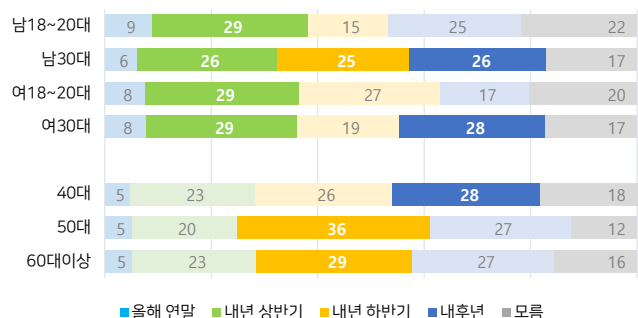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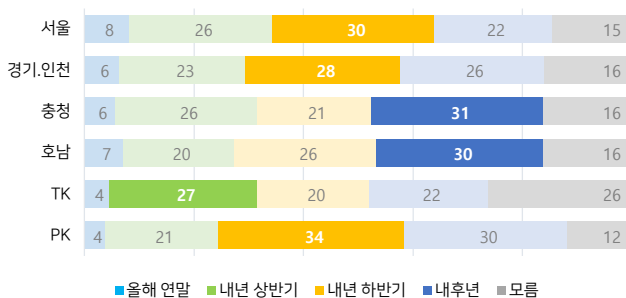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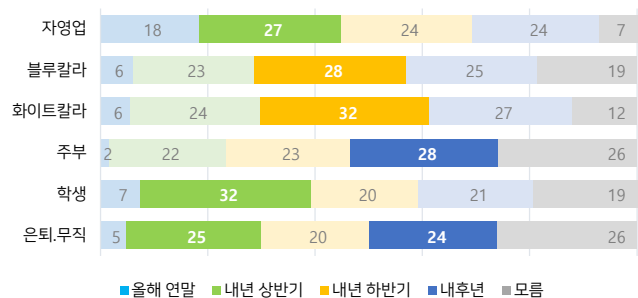
□ 세계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계층별 의견 달라

- 요즘의 '나쁜 세계경제'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견이 분분함
- '내년 하반기까지'가 28%로 가장 높은 가운데, 다음은 '내후년까지'(26%), '내년 상반기까지'(24%) 등으로 조사됨
 - 앞서, 요즘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한 국민들에게만 질문한 결과임
- 계층별로 우세한 응답은 다른데, 먼저 '내년 상반기'까지 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20대 남녀 △TK △자영업자, 학생 등임
 - 보수층의 경우 '내년 상반기'와 '내년 하반기'라는 의견이 팽팽하고, 30대 남자는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 '내후년' 등이 비슷한 의견임
- '내년 하반기까지'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 △정부신뢰층 △5060세대 △서울, 경기.인천, PK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등임
 - 중도층과 정부불신층은 '내년 하반기'와 '내후년'이라는 의견이 비슷함
- '내후년까지'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40대 △충청, 호남 △주부 등임

세계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전체, 이념별, 정부신뢰별 (단위: %)



세계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성/연령별 (단위: %)

세계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지역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세계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직업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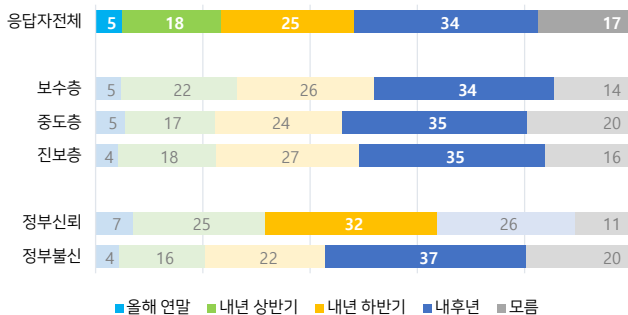
Kstat Point

- ☑ 세계경제의 '나쁜 상황'이 '올해 연말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6%에 그침
- ☑ 대신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 나아가 '내후년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다수를 차지함
 - : '내년 상반기까지'라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은 20대 남녀에 그치고, 5060세대는 '내년 하반기까지', 40대는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다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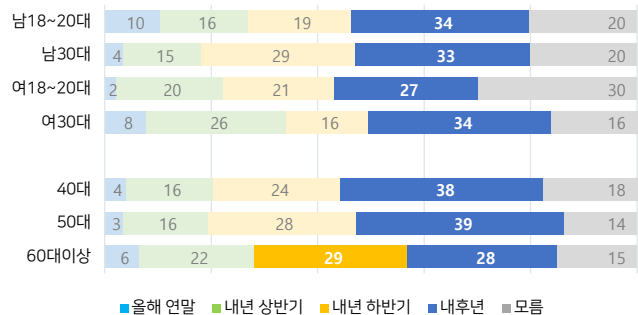
□ 국가경제 '나쁜 상황', '내후년까지' 유지 전망 다수

- '우리 국가경제'의 '나쁜 상황'에 대한 전망은 '내후년까지'라는 의견이 많고(34%), 다음은 '내년 하반기까지'(25%), '내년 상반기까지'(18%) 등으로 나타남
 - 앞서, 요즘 우리나라 국가경제 상황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한 국민들에게만 질문한 결과임
- 계층별 응답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내후년까지'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정 부불신층 △4050세대 △충청, 호남 △학생 등임
- '내년 하반기까지'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정부신뢰층에 그침
 - 60대이상과 자영업자는 '내년 하반기'와 '내후년'이라는 의견이 팽팽함

국가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전체, 이념별, 정부신뢰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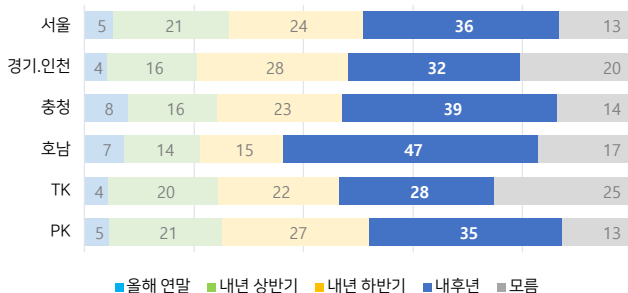


국가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성/연령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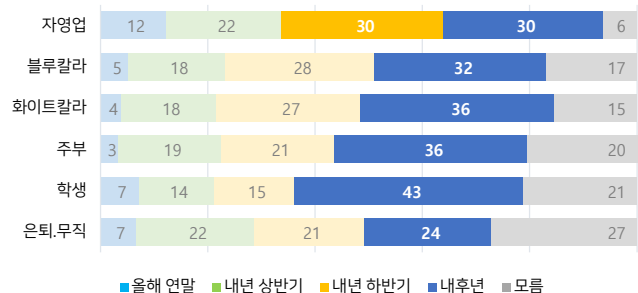
국가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지역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



국가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직업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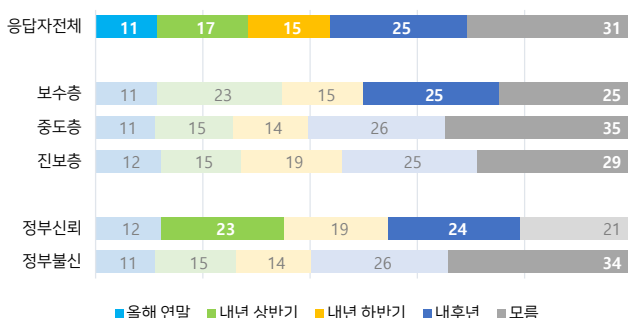
Kstat Point

- ☑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으나, 우리 국가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내후년까지' 나쁜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다수임
 - 이념별, 성/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모두에 걸쳐 '내후년까지'라는 응답이 우세함
- ☑ 다만, 정부신뢰층과 60대이상, 자영업 종사자는 '내년 하반기까지'라는 응답 비중도 높게 나타남
 - 정부신뢰층과 60대이상의 경우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하게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처해 있어, 그만큼 간절한 희망으로 '내년 하반기까지'로 응답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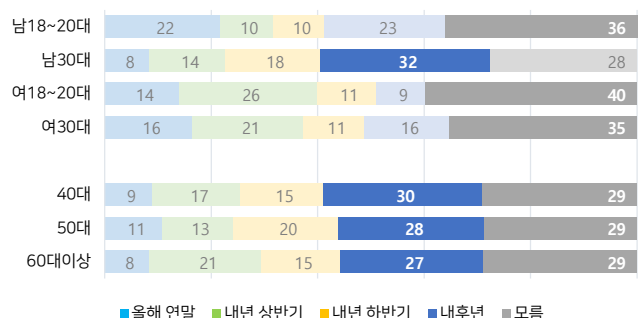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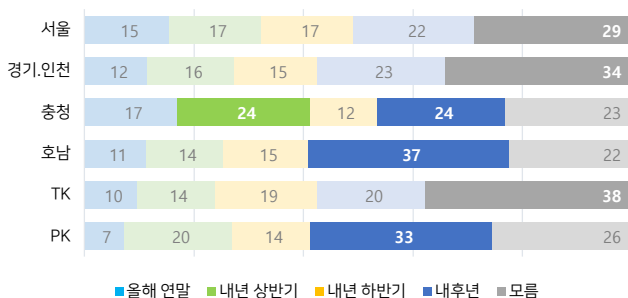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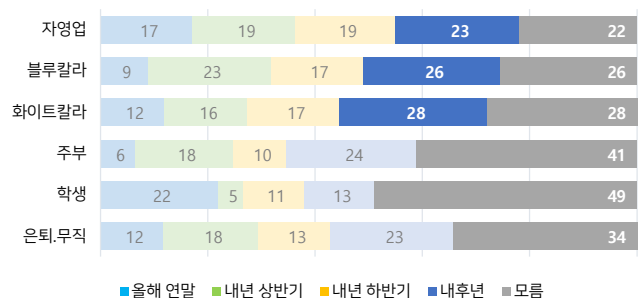
□ 내 개인경제 '나쁜 상황', '모르겠다' 의견 높아

- '내 개인의 경제'가 '나쁜 상황'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내후년까지'(25%), '내년 상반기까지'(17%), '내년 하반기까지'(15%), '올해 연말까지'(11%) 순으로 조사됨
 - 앞서, 요즘 내 개인의 경제 상황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한 국민들에게만 질문한 결과임
- 계층별 응답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르겠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중도층 △정부불신층 △20대 남녀, 30대 여자 △TK △주부, 학생 등임
- '내후년까지'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30대 남자 △호남, PK 등임
- 한편, '모르겠다'는 응답과 '내후년까지'라는 응답이 팽팽한 계층은 △보수층 △4060세대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등임
 - 정부신뢰층과 충청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와 '내후년까지'가 비슷한 의견임

개인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전체, 이념별, 정부신뢰별 (단위: %)



내 개인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성/연령별 (단위: %)

내 개인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지역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내 개인경제 '나쁜 상황' 유지 전망: 직업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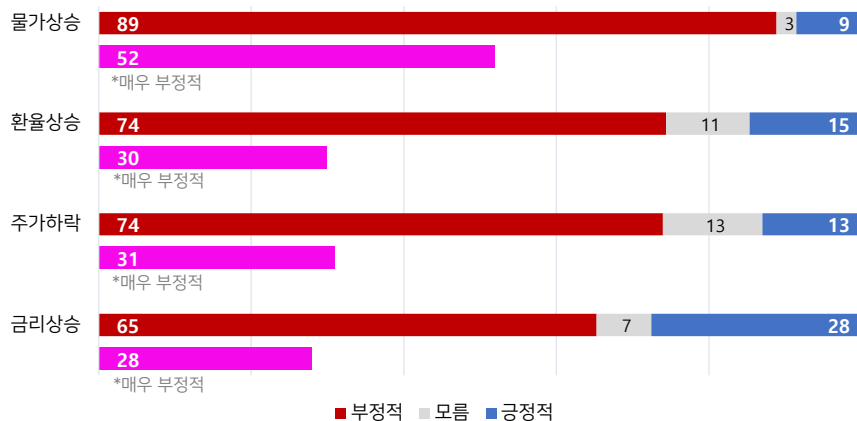
- ☑ 자신의 나쁜 경제상황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이 우세함
 - : 세계경제와 국가경제 전망과 달리, 자신의 문제를 생각할 때 예측초차 하기 힘들다는 매우 비관적인 태도를 드러냄
 - : 코로나19 터널을 겨우 빠져나왔지만 경기침체라는 또 다른 터널이 나타나, 망연자실해 있는 모습과 다름 아님
- ☑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의 비전을 안겨주는 정부 및 정치권의 대대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경제요인별 '내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

□ '물가상승' 영향, '부정적' 89%로 매우 높아

- 최근의 경제요인들 모두가 국민 개개인의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물가상승'의 부정 영향이 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환율상승'과 '주가하락'이 공히 74%, '금리상승' 65% 순으로 응답함
 - "선생님 개인의 경제 상황만 생각할 때, 다음 각각의 요인이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나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나쁘다'는 응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가상승'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는 응답이 52%에 달해, '물가상승'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개인의 경제상황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남
 - 위 질문에 대한 보기는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다소 부정적인 편이다, ③ 다소 긍정적인 편이다, ④ 매우 긍정적이다, ⑤ 모르겠다로 제시함

경제요인별 내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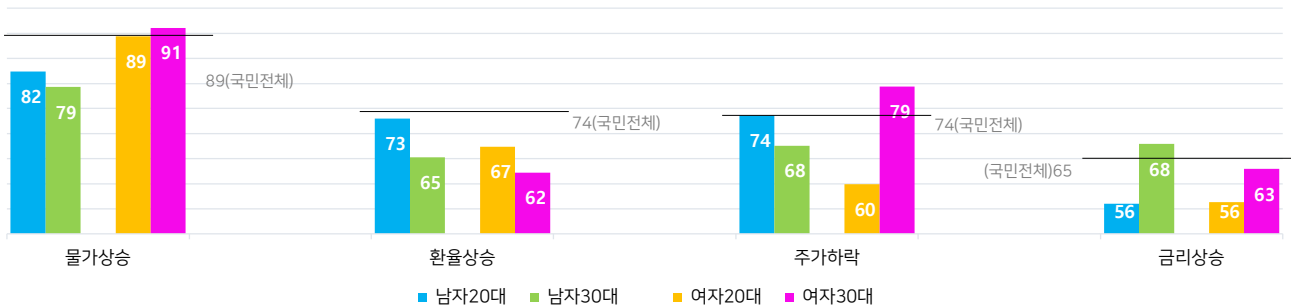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경제는 최근 '물가상승', '환율상승', '금리상승', '주가하락' 등 악재가 산적해 있음
- ☑ 이들 경제요인 중 국민 개개인의 경제상황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가상승'이며, 강도도 매우 강함 : '환율상승'이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높은 것은 '환율상승'이 '물가상승'을 더욱 자극한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임
- ☑ '주가하락' 역시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작년의 '주식열풍' 속에 다수의 국민이 주식투자에 나선 것을 상기할 때 손실을 본 국민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됨
- ☑ 한편,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금리상승'의 경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금리상승'이 채무가 있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경제요인보다 해당되는 국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결과로 분석됨 : '금리상승'에 대해 '긍정적이다'는 응답도 28%를 기록했는데, 이는 예·적금 등 은행관련 자산이 있는 경우 금리상승이 자산증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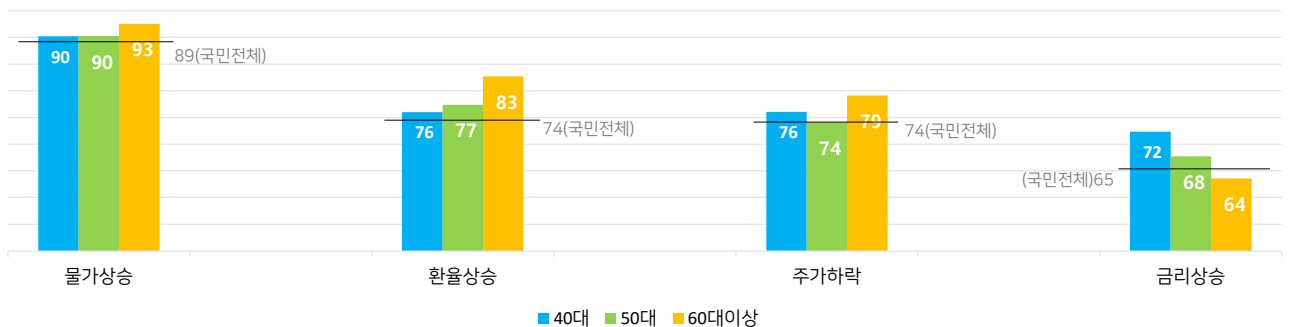
□ '물가' 전 세대에 영향 / 다른 요인은 세대 차이 존재

- 경제요인 중 먼저 '물가상승'의 경우 모든 성/연령에서 '부정적'이라는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남
 - 30대 남자의 부정적 영향 응답비중이 79%로 가장 낮고, 60대 이상이 93%로 가장 높음
- 다른 경제요인의 경우, 4060세대들은 대체로 국민전체보다 높은 '부정적' 수치를 기록함
 - 환율상승, 추가하락, 금리상승 모두 4060세대들은 국민전체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예외적으로 금리상승의 경우, 60대 이상은 국민전체보다 낮은 수치를 보임
 - 아래 그림에서 가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부정적 영향' 수치임
- 이에 비해 2030세대들은 전반적으로 국민전체보다 낮은 '부정적' 수치를 나타냄
 - 예외적으로 30대 여자의 경우, 추가하락에 대해 국민전체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경제요인별 '내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 평가 정도 : 2030세대 남녀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경제요인별 '내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 평가 정도 : 4060세대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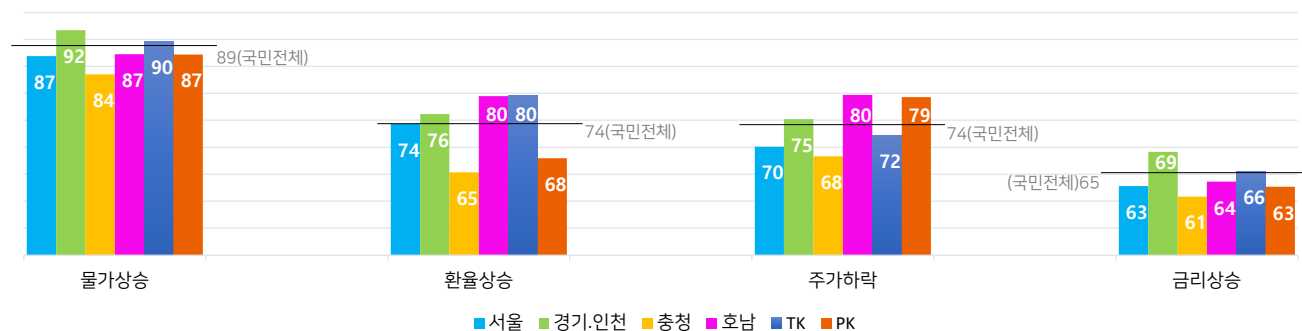
Kstat Point

- ☑ '물가상승'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에, 성/연령과 상관없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수치가 매우 높음
 - : 그만큼 '물가상승'은 전 국민적 이슈이자, 삶과 밀접한 이슈임
 - : 정부가 다양한 경제요인 중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할 요인은 '물가상승'임을 알 수 있음
- ☑ 이와 달리 '환율상승', '추가하락', '금리상승' 등은 해당 자산(채무 포함) 보유 유무에 따라 받는 영향이 달라지게 됨
 - : 4060세대의 부정적 영향 수치가 높고, 2030세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는 세대 간 자산 보유 차이 때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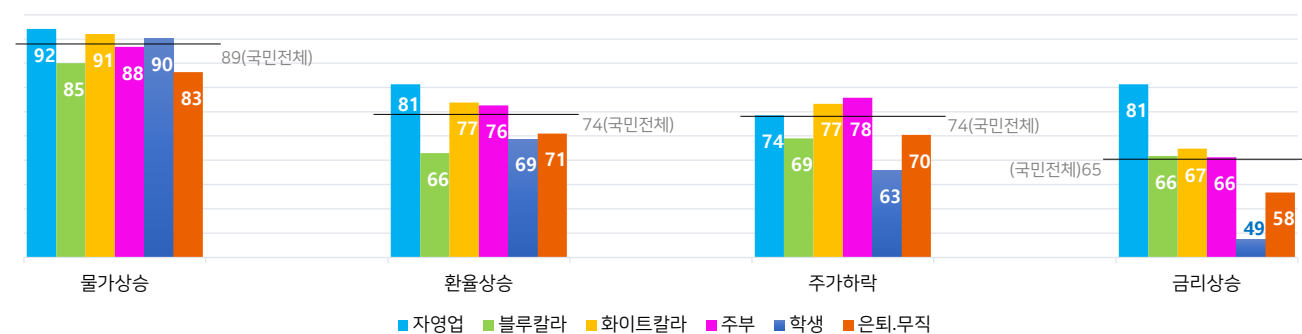
□ 경기.인천과 자영업자, 화이트칼라 부정영향 특히 높아

- 경제요인들이 자신의 경제상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모든 요인에 걸쳐 국민전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아래 그림에서 가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부정적 영향' 수치임
- 이에 비해 서울과 충청지역은 국민전체보다 낮은 '부정적' 수치를 기록함
-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화이트칼라 종사자의 부정적 영향 수치가, 모든 요인에 걸쳐 국민전체보다 높게 나타남
 - 특히 자영업자의 '부정적' 수치는 모든 요인에서 가장 높음
- 이에 비해 블루칼라와 은퇴.무직자는 모든 요인에 걸쳐 국민전체보다 낮은 '부정적' 수치를 기록함

경제요인별 '내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 평가 정도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경제요인별 '내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 평가 정도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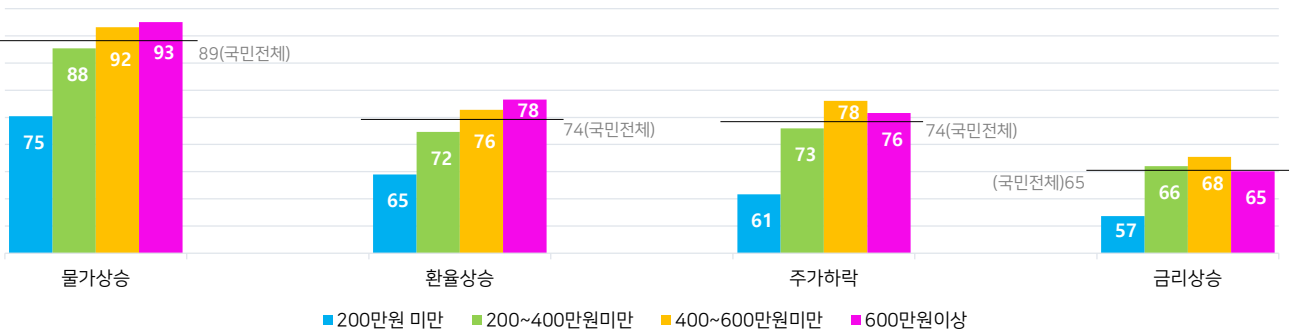
Kstat Point

- ☑ 물가, 환율, 금리, 주가 등 4가지 요인만 놓고 볼 때 요즘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지역은 경기.인천이며, 자영업자와 화이트칼라 종사자들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
 - : 이들은 모든 요인이 국민전체보다 높은 '부정적' 수치를 기록함
- ☑ 경기.인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금리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주택구입 시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임
- ☑ 또한 자영업자는 최근의 경제요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재차 확인됨
 - : 화이트칼라 계층은 앞서 '현 경제상황 인식'에서 국민전체보다 낮은 '부정 인식도'를 기록했지만, 모든 경제요인들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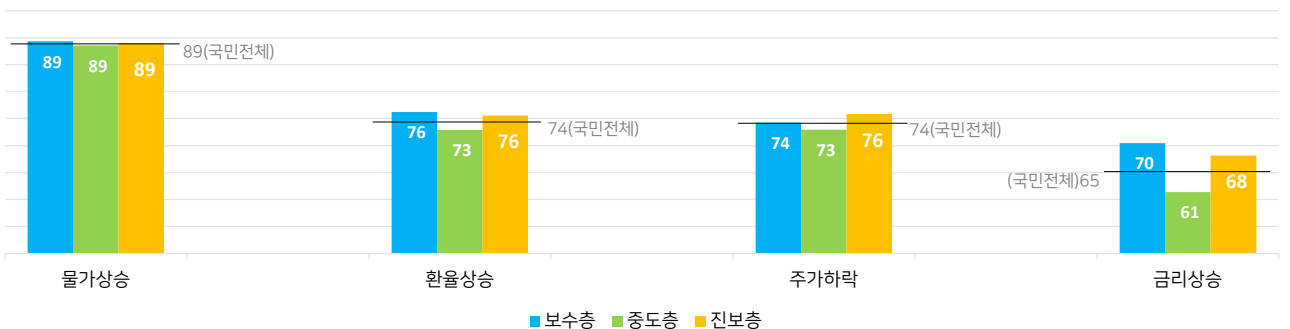
□ 고소득층도 부정영향 높고, 이념별 차이는 거의 없어

- 경제요인들이 개인 경제상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월 평균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도 예외없이 '부정적' 수치가 높음
 - 아래 그림에서 가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부정 인식도'임
-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도 모든 요인에 걸쳐 국민전체 '부정적' 수치 이상을 기록함
 - 절대적 수치면에서 400~6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부정적' 수치가 가장 높음
 -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부정적' 수치는 모든 요인에 대해 국민전체보다 낮음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는 차이가 거의 없음
 - 모든 요인에 대해 중도층의 '부정적' 수치가 소폭 낮은 차이를 나타냄

경제요인별 '내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 평가 정도 : 월평균 가구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경제요인별 '내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 평가 정도 : 주관적 이념성향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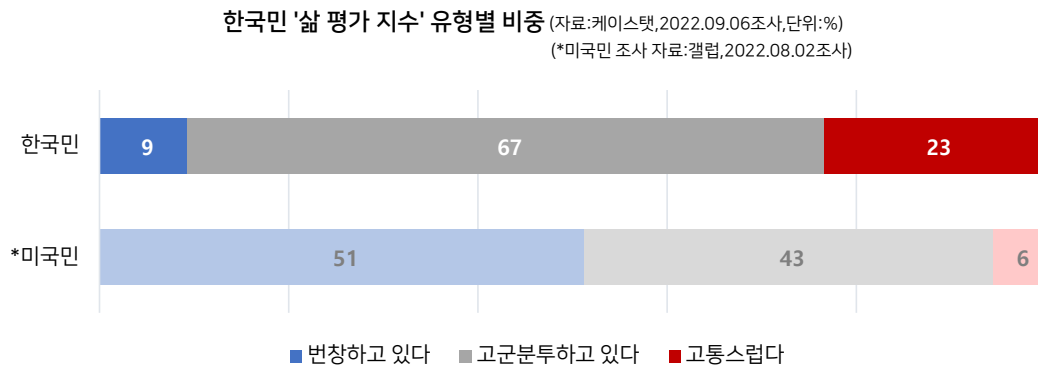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요즘의 경제요인들이 '내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00~600만원 미만 중상 소득층의 '부정적' 수치가 높고,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도 예외없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
- ☑️ 이에 비해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타격은 상대적으로 낮음 : 저소득층은 자산이 많지 않아 환율상승이나 주가하락, 금리상승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으로 분석됨
- ☑️ 정부 입장에서 지금의 경제상황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중상 소득층과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 코로나19 당시에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타격이 컸던데 비해 지금의 경제충격은 중상, 고소득층으로 향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인식해야 함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 '번창하고 있다' 9%, '고통스럽다' 23%

- 우리 국민들의 '삶 평가 지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통스럽다'는 국민이 23%로 나타났으며, '번창하고 있다'는 국민은 9%에 불과함
 -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유형의 국민은 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미국민의 경우, 우리 국민과 달리 '고통스럽다'는 국민은 6%에 그치고, '번창하고 있다'는 51%, '고군분투하고 있다' 43%로 조사됨



- '삶 평가지수'(Life Evaluation Index)는 미국 갤럽의 조사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 및 유형화가 이뤄짐

조사문항 다음은 삶의 사다리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현재,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서 있다고 느끼세요? 그렇다면 약 5년 후에는 어떤 단계에 서 있을거 같으세요?

최고의 삶의 단계	10	()	최고의 삶의 단계	10	()
	9	()		9	()
	8	()		8	()
	7	()		7	()
	6	()		6	()
	5	()		5	()
	4	()		4	()
	3	()		3	()
	2	()		2	()
	1	()		1	()
최악의 삶의 단계	0	()	최악의 삶의 단계	0	()

- 유형화 방법**
1. 번창하고 있다(Thriving) : 현재 7점 이상 and 미래 8점 이상
 2. 고군분투하고 있다(Struggling) : (유형 1과 3 외 모든 응답자 / 보통이거나 일관성이 약한 삶)
 3. 고통스럽다(Suffering) : 현재 4점 이하 and 미래 4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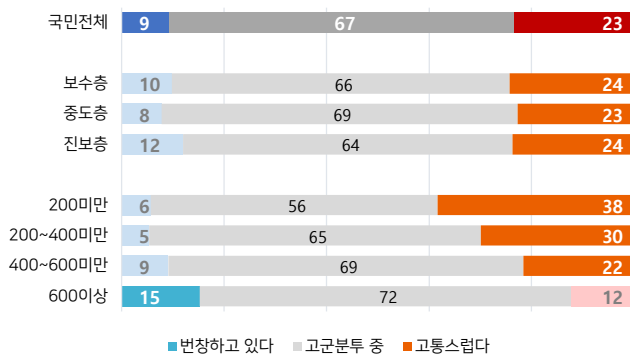
Kstat Point

- ☑ 미국 갤럽은 정기적으로 '삶 평가 지수'를 조사·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8월 2일 조사에서 '고통스럽다'는 비중이 6% (정확히는 5.6%)를 기록하자, 커다란 경제 이슈로 부각됨
 - :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기 때문이며, 그만큼 지금의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름
- ☑ 갤럽의 조사·분석을 참고할 때, 우리 국민의 '고통스럽다'는 비중 23%는 매우 높고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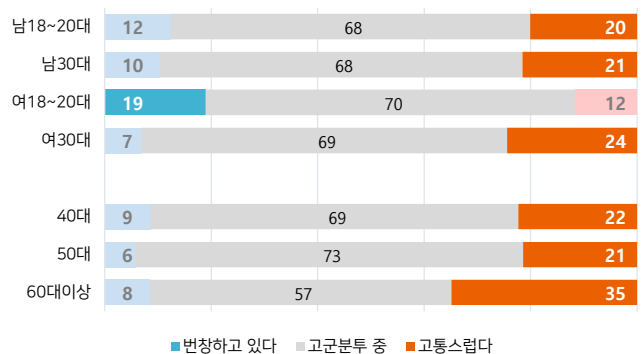
□ '고통스럽다' 유형, 거의 모든 계층에서 우세

- '삶 평가 지수'의 유형별 비중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고통스럽다'는 유형이 우세하고, 특히 우세한 계층은 △400만원 미만 소득계층 △60대이상 △호남, TK △자영업자, 블루칼라, 은퇴.무직자 등임
- '변창하고 있다'는 유형이 우세한 계층은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여자 20대 △학생 등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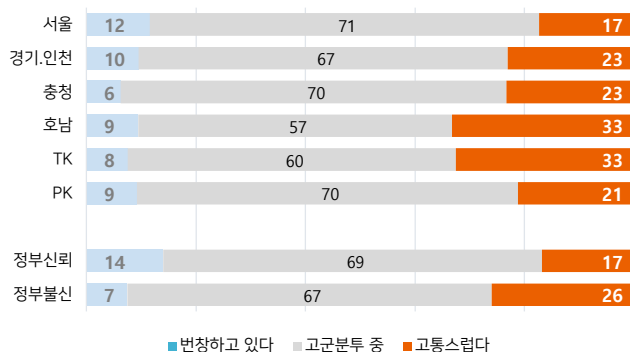
'삶 평가 지수' 유형별 비중: 국민전체,이념별,소득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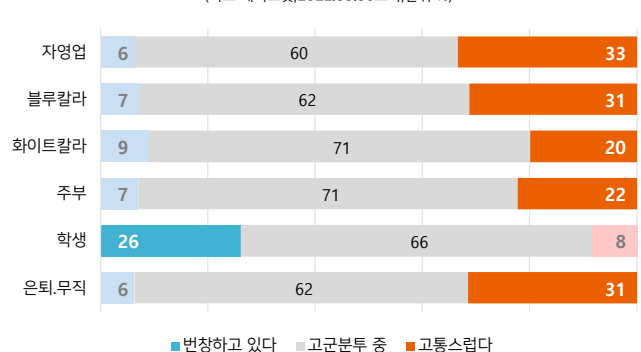
'삶 평가 지수' 유형별 비중: 성/연령별 (단위:%)



'삶 평가 지수' 유형별 비중: 지역별,정부신뢰별 (단위:%)



'삶 평가 지수' 유형별 비중: 직업별 (자료:케이스넷,2022.09.06조사,단위:%)



Kstat Point

- ☑️ 요즘의 경제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 중 23%는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음
: 변창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국민은 9%에 불과함
- ☑️ 또한 '고통스러운 삶'은 특정 계층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근래의 경제적 충격이 전방위적인 것을 알 수 있음
: 각종 경제지표는 역대 최악의 기록을 연달아 갱신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다소 위기감이 떨어진다는 비판적 지적임
: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수 국민들은 고군분투 중이고, 삶이 고통스럽다는 국민들은 전 계층에 산재해 있음
: 지금의 경제충격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는데, 정부 대응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삶이 고통스럽다는 국민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59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59호는 『영국 '보수주의자 신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9월 29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9월 사회지표는 9월 22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

